

“농업의 미래, 여성이 바꾼다”

국제농업박람회 10월 17일부터 11일간 나주농업기술원을 전남 유일 국제행사...북한사절단 참석 여부 관심 집중

“2019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4회째인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 참가와 50만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국내 최초 여성농업인 전면에= 올해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여성농업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부제가 ‘미래를 꾸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이다.

또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중심의 농업 활로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비즈니스 박람회, 사회적농업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농업 혁신기술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첨단융합 박람회로 추진된다.

14일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국제행사 최초로 여성농업인을 본격 조명, 발전 가능한 미래농업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농업 부가가치 향상의 주역인 여성농업인들의 6차 농산물 우수사례를 전시하고, 휴과 농작물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해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마당을 별도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고부가가치 농업의 주역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여성청년농업인과 국제농정홍보관이 배치된다.

혁신기술마당에는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한 첨단농업 선진기술이 선보인다.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팜 전남혁신밸리 운영과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 ICT 기술 및 농기계 체험, 3D프린터 식품

등도 만날 수 있다.

전시체험마당에는 조류·파충류·가축류·희귀 동물 등 40여종의 다양한 동물과 만나 볼 수 있는 행복한 동물농장과 아열대 식물관·치유농업관이 들어서고, 상생교류 마당에서는 22개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부스 운영하고, 농업인단체·사회적기업 등 농업인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북한 사절단 오나= 올해 국제농업박람회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 사절단이 박람회에 참석하느냐 여부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북한 사절단을 초청해 선진농업 기술 교류, 국제심포지엄 참석, 북한 농식품 홍보·판매 부스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남북교류 진전과 북한 식량난 해소라는 남북 모두의 이해관계가 국제농업박람회 만큼 절묘한 이벤트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그동안 평양 발효공방공장 건립 지원 등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교류사업을 펼친바, 그 어느 지자체보다 신뢰가 돈독한 상태다.

농산물 유통 개척을 위한 박람회 대표상품 발굴과 함께 프리미엄 구매·수출 상담회도 추진한다. 사무국은 국내외 바이어를 통한 수출계약과 현장판매 등 판촉수입 목표를 1733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 2017년보다 732억원 늘어난 규모다.

해의 선진 농업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회의도 연다. 국제학술회의로는 전남 농업기술원이 주최하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 남북기술교류 세미나와 세계 속의 아시아 명차산업 세미나, 제2회 국제근초산업 심포지엄,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과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 2019 스마트식품병해충 방제시스템



‘2019 국제농업박람회’ 농정홍보관에서 열린 해외비즈니스 행사에서 한 관람객이 와인 체험을 하고 있다. 위는 10월 열리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 여성농업마당 전시장 이미지.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제공>

구축 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열린다.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박람회 해설사 도슨트를 운영하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광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국

제농업박람회와 동반 성장할 대표 상품과 기업 발굴로 기업 간 거래 중심의 비즈니스 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올해 전남 유일의 국제행사인 농업박람회에서 우리 농산품과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산촌 경제 활성화 하려면 국공유림 주민들에 허용해야”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공유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최근 연구원은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남·강원·경남·제주의 6개 마을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촌 활성화와 국공유림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연구원은 산촌에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국공유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1ha 미만 영세규모 산주가 전체의 66.6%(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주의 70%가 산림경영에 대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0%는 개발제한구역 등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임야(52.3%)거나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임야(27.3%)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유림 경영을 통해 산촌경제 활성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국공유림 활용방

안 마련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공유림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호근 KREI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국공유림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산지 이용 확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속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촌은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km) 이하,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인 곳이다. 전남지역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읍·면 540개 마을로 이뤄졌다. 면적은 31만ha로 전남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곳을 제외한 52개 면이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도농 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김일수)가 지난 12일 도농 상생 금요직거래장터(사진)를 개장했다. 광주본부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연다.

금요직거래장터는 우수하고 다양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장 장터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50

여개의 우수 농산물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됐다. 또 지역 농산물로 만든 부추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은행사가 함께 진행돼 장터를 찾은 많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김일수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14개 농협 조합장, 노홍기 한농연 광주연합회장, 오미륵 광주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중시전망은 필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대촌농협 농기계 무상점검

오일 무상 교체 등

광주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은 최근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 학습지점 주차장에서 중소형 트랙터·경운기 등 총 140여대를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실시했다.

대촌농협은 또 ㈜대동공업 광주대리점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오일을 무상 교환해 주고 부속품은 실비만 받고 수리했다.

전봉식 조합장은 “그동안 연1회 실시하던 농기계 무상점검을 올해는 가을 농번기 전 8~9월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며 “바빠서 이번에 찾지 못한 농업인들은 하반기에 꼭 점검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